

광양시, 관광진흥종합 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시동

2023년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원년으로 삼고 엔데믹시대 관광 생태계 회복과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광양관광의 한 해를 돌아봤다.

광양시는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광양관광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다각적으로 펼쳤다.

시는 민선 8기 관광정책을 반영한 광양시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이라는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을 선도할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수립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광양관광의 비전과 향후 5년(2024년~2028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 등을 담은 밑그림을 내용을 방침

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광양관광 비전제시 및 관광정책 기본방향 설정, 관광진흥 기본구상 및 권역별 자원활성화 방안,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이다.

●매화축제 등 글로벌 관광축제 성공 개최

전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4년 만에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역대 최대 122만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등 큰 호응 속에 전남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섬진강권 4개 지자체의 '섬진강관광시대 원년' 선포로 개막한 축제는 '4년 만의 재회'를 콘셉트로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 아래 엔데믹시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티켓오픈 4분 만에 매진되는 등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취향, 국경을 아우르며 글로벌

‘여행하기 좋은 도시’ 선정
매화축제·K-POP 페스티벌
글로벌 관광 축제로 안착
274억 규모 관광개발 공모

관광축제로 안착했다.

지난해와 달리 K-POP 공연과 7080 &트롯을 이틀에 걸쳐 개최해 향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42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등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 슬로건으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광양관광이 다양한 부문에서 주목받으며 가시적 성과를 냈다.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상은 디지털 대전환, ESG 등 여행에도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풍부한 자연 자원과 유연한 관광수용태세로 경쟁력 확보를 입증했

다.

‘구봉산전망대&광양만야경’은 차별화된 야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오르며 체류형 관광시대 선도에 기대를 높인다.

‘공공 우수야영장 20’에 선정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아웃도어 여행, 캠핑, 차박 등 새로운 여행트렌드를 이끄는 700만 캠핑시대의 청신호다.

부킹닷컴이 발표한 ‘주목해야 할 국내 인기 여행지 탑 10’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관광도시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백운산·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권역별 관광 구축

광양시는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각 권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린 관광개발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운산권은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토종식물원,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 등 총 2000억여 원 규모의 국도비 및 민자를 확보해 역사, 생태,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웰니스 관광지를 구축하고 있다.

구봉산전망대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봉산권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POSCO 체합형 조형물, 세계 최장 끝단 출렁다리 770 등 총 6155억원을 투자해 전 세계인이 찾는 산악형 종합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

섬진강권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섬진강 속 빛나는 운동주의 별빛아일랜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아트케이션관광스테이’,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섬진강을 품은 별빛나루’ 등 10개 사업 총 1617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정인화·광양시장은 “2023년은 코로나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을 선도할 관광정책 수립, 경쟁력 있는 권역별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소프트·하드 파워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각종 관광 부문 어워드에서 주목 받고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섬진강 망덕포구. 광양시 제공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확대

광양시는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결혼 3년 이내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예비부부 또는 결혼 1년 이내 부부에게 지원되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는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다.

건강검진은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항목은 혈액·소변·흉부X선 검사 등이

다. 세부 항목으로는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14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A·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일반검사, 결핵검사 등이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광양시는 오는 26일부터 2024년 1월4일까지 전세피해 입차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소 운영기간은 평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홀몸 어르신 등 110가구 방문
문품지 등 방한 물품지원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사)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박병관)가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20일까지 추진한다.

광양시,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겨울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실천가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110가구에 직접 방문해 한파 취약성을 진단하고 문풍지·에어캡·방한텐트를 설치하여 단열효과를 개선했다.



광양시가 최근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펼쳤다.

광양시 제공

이불, 내의, 수면양말 등 방한 물품을 지원하고 온(溫) 맵시 입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무리한 신체운동 피하기, 저체온증·동상 조심하기, 외출 시 전열기구 끄기, 장시간 외출 시 동파 예방하기 등 한파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정인화 시장은 지난 15일 광양을 80대

여성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탄소중립실천가들과 함께 방한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관리 등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해 보호가 절실한 가정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